

여자한복의 기성복화를 위한 패턴개발

- 20대를 중심으로 -

강순제¹⁾ 황의숙²⁾ 남윤자³⁾ 조효숙⁴⁾ 홍나영⁵⁾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교수¹⁾

배화여자대학 전통복식과 조교수²⁾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조교수³⁾

경원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상학과 부교수⁴⁾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과학대학 의류직물학과 부교수⁵⁾

The Pattern Standardization of Ready-made Korean Traditional Costume for Women in Twenties

Soon-Che Kang·Eui-Sook Hwang·Yun-Ja Nam·Hyo-Sook Cho·Na-Young Hong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Dept. of traditional costume, Baiwha Womans College,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t. of clothing, Kyung Won University,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ABSTRACT

The present study aims at developing standardized patterns of ready-made Korean traditional costume for women in twenties and at suggesting classified standards so that consumers can buy high quality clothes easily without dissatisfaction on unsuitable measurements.

It was found from the dressing experiment results that new-concept patterns of Korean jackets considering women's bodies were seriously required because jackets fabricated by conventional patterns were not properly fitted to their bodies.

During the processes of pattern development, dressing experiment, and subsequent pattern adjustment, measurement standards classified by women's bodies were established, and new standardized patterns were developed in accordance with characteristics of women's bodies.

These findings suggested that future studies on the pattern modification should be achieved continuously in consideration of ages, tastes, and fashions of modern women consumers.

Key Word : 여자 저고리 패턴 A, 여자 저고리 패턴 B, 평편을, 4단계 시제품 패턴치수표

I. 서론

우리나라의 민족 복식인 한복은 점차 서구화되는 외생활에 의해 일상복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대신에 예복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한복의 고급화 또는 패션화를 유도하면서 한복 마련을 거의 맞춤에 의존하게 하고, 더불어 한복을 고가의 상품으로 자리매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진은 앞서의 연구에서 20대 여성의 체형을 분석하고 체형에 적합한 한복 제작을 위한 사이즈 규격을 설정한 바 있으며¹⁾, 이어서 본 연구에서는 20대 여성의 체형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체형을 감안한 새로운 패턴을 제시하고, 규격별로 세분화된 표준패턴을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20대 연령층은 대부분 결혼을 계기로 한복의 착용 경험을 갖게 되는 세대이다. 또한 이들 연령층은 감각적이면서 불편을 못참는 세대이며, 체형도 과거 10년 전과 비교해 보았을 때 가슴이 발달하고 팔, 다리가 길어졌다. 따라서 변화된 체형에 맞는 패턴을 개발함으로써, 한복의 착용감을 향상시키면서 나아가 이들에게 한복도 서양복에서와 같이 상품의 진열대에서 사이즈와 색상, 장식 등을 자신들의 감각으로 골라 입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면, 한복 인구의 저변 확대 차원에서나 한복에 대한 인식 전환의 차원에서 본 연구는 보다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궁극적으로 한복의 표준패턴 개발은 한복의 기성복화를 유도함으로써, 자신이 입을 한복을 자신이 고르고자 하는 이들의 욕구도 충족시키고, 맞춤복에도 표출되고 있는 부적절한 치수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하며, 나아가 일반 대중이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고품질의 중저가품 한복을 생산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한복 착용인구의 확산은 물론, 동시에 한복의 기성복시대를 열어가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기존 한복 패턴의 조사 분석과 예비 착의실험

II-1. 여자저고리

(1) 기존 여자저고리 패턴의 분석

기존 학계와 업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여자저고리 원형 중 5가지 패턴을 임의로 선정하여 그 특징을 조사하였다.

각각의 패턴은 가슴둘레 85cm, 화장 75cm, 등길이 39.5cm, 저고리길이 25cm를 기준으로 제도하였다. 제작된 의복은 신장 163cm, 가슴둘레 85cm이면서²⁾ 유방이 작고 납작한 체형의 모델 1명(A)과 유방이 발달된 체형의 모델 1명(B)을 임의로 선정하여 착의상태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뒷목을 둘러싸는 고대 깃의 착용새가 좋지 않았는데 이는 대부분의 패턴이 고대를 B/10-0.5cm로 설정하여 전체적으로 고대가 컸던 데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패턴에 따라 걸깃이나 안깃의 길이가 지나치게 길거나 짧아 보이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뒤품이 커서 뒷도련선이 뜨고, 앞도련선 부분에서는 품이 부족하여 섉의 좌우가 벌어지는 현상과 윗가슴선 부분에서 필요없는 여유분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A, B 두 모델에게서 공통적으로 지적되었으나, 특히 유방이 발달한 모델 B의 경우에는 뒤품과 앞품에서 보다 더 큰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가슴을 조이지 않으면서 뒤품이 적당하고, 앞품에는 다소 여유가 있되, 가슴의 볼륨선을 자연스럽게 커버하여 착용시는 가슴에 압박을 주지 않고도 아름다

1) 강순제, 남윤자, 조효숙, 홍나영, 황의숙(1999. 1), 「복식」, 42호, 한국복식학회, p.132.

2) 본 연구에서는 가슴에 압박을 주지 않고도 아름다운 실루엣을 나타내기 위한 패턴 개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브래지어와 속치마, 걸치마를 모두 착용한 후의 가슴둘레가 85cm인 모델을 선정하였다.

운 실루엣을 보여줄 수 있는 패턴의 개발이 요구되었다.

(2) 패턴개발 및 예비 착의실험

인체측측 결과 20대 여자의 신체측정치에서 신장은 159.9cm, 가슴둘레 81.9cm, 화장은 71.4cm의 평균 치수를 보였다.³⁾ 그런데 화장은 본 연구에서 손목뼈까지 계측하였기 때문에 한복의 경우에는 실제 측정치보다 2.5cm 정도 긴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패턴개발을 위한 여자패턴의 기본치수를 키 160cm, 가슴둘레 82cm, 화장 74cm로 하였다.

① 1차 패턴개발 및 예비 착의실험

기존 패턴의 조사결과에 따라 여자저고리 패턴 I을 개발하였다. 여자저고리 패턴 I은 기존의 패턴에서 저고리의 뒤편이 커서 뒤도련선이 뜨는 것을 보정하기 위해 기존의 뒤편에서 1cm 줄여 뒤편을 $B/4+1cm$ 로 하는 대신에, 줄인 1cm를 앞뎀으로 늘여 앞뎀을 $B/4+3cm$ 로 하였다. 고대도 기존 패턴보다 0.5cm를 줄여 $B/10-1cm$ 로 하였다. 진동과 걸깃 길이는 $B/4$, 안깃길이는 걸깃길이+깃나비+5cm, 깃나비는 4cm, 저고리 앞쳐짐분은 3cm, 걸섯위나비는 깃나비+1cm, 걸섯아래나비는 윗나비+0.2cm, 고름나비는 6cm, 긴고름 길이는 135cm로 제작하였다. 제작된 여자저고리 패턴 I을 폴리에스터 국사로 제작하여 예비 착의실험하였다.

여자저고리 패턴 I을 예비 착의실험한 결과, 모델 A, B 모두 기존 패턴을 착용했을 때 보다 뒤편의 상태가 나아졌지만 가슴이 납작한 체형인 모델 A에게는 윗가슴분은 약간 뜨고, 앞뎀 모두 다소 큰 편이었다. 모델 B의 경우 앞뎀은 적당하지만 아직도 저고리의 윗가슴부분에 여유가 많아 빈공간이 떠 보였고, 뒤편도 다소 상태가 나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큰 편이었다. 이는 저고리 전체의 품에 두었던 8cm의 여유분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안깃은 A, B 두 모델에게 모두 길어 보였으

며, 저고리의 앞길이는 적당하였다.

② 2차 패턴개발 및 예비 착의실험

1차 패턴개발 및 예비 착의실험 결과에 따라 2차로 3개의 새로운 패턴 II, III, IV를 개발하였다. 즉 여자저고리패턴 II는 앞뎀 모두를 $B/4+0.5cm$, 패턴III은 앞뎀 $B/4+0.5cm$, 뒤편 $B/4$ 로, 패턴IV는 앞뎀 모두를 $B/4$ 로 설정한 다음, 다시 앞길의 중심선과 저고리 길이선상의 교점에서 패턴II는 2cm, 패턴III는 2.5cm, 패턴IV는 3cm를 내어 사선으로 이동된 선을 새로운 앞중심선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개발된 패턴에서 저고리품 전체는 가슴둘레 +6cm가 되도록 함으로써 저고리의 전체적인 여유를 줄이고, 앞길에서는 윗가슴 부분의 불필요한 여유를 없애면서 앞길이 가슴의 곡선을 편안히 감싸도록 유방 부위의 너비를 늘이는 데에 유념한 것이다.

2차 패턴개발 및 예비 착의실험 결과 모델 A의 경우 앞 중심선을 2cm 이동시킨 여자저고리 패턴 II의 착용상태가 좋았으며, 모델 B는 앞 중심선을 2.5cm 이동시킨 여자저고리 패턴 III의 착용상태가 좋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따라서 패턴 IV는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두 패턴 모두 진동($B/4$)과 걸깃($B/4$)이 0.5cm 정도 짧았으며, 안깃(걸깃+6cm)이 1cm 정도 긴 것 외에는 모두 잘 맞았다. 이에 걸깃길이는 $B/4+0.5cm$ 로, 진동은 $B/4+0.5cm$ 로, 안깃길이는 걸깃길이+깃나비+1cm로 수정하였다. 그리고 고대나 수구, 고름 나비, 섯나비 등 저고리의 세부 치수는 가슴둘레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그림 1).

한편 브라지어의 치수체계에서 같은 가슴둘레라도 밑가슴 둘레와의 차이에 따라 A, B, C로 분류하듯이, 비교적 가슴발달이 적은 모델 A의 체형을 여자저고리 패턴 II에 적용하여 완성시킨 패턴을 '여자저고리 패턴 A', 가슴이 발달한 모델 B의 체형을 여자저고리 패턴 III에 적용하여 완성시킨 패턴을

3) 강순제 외 4인(1999. 1), p.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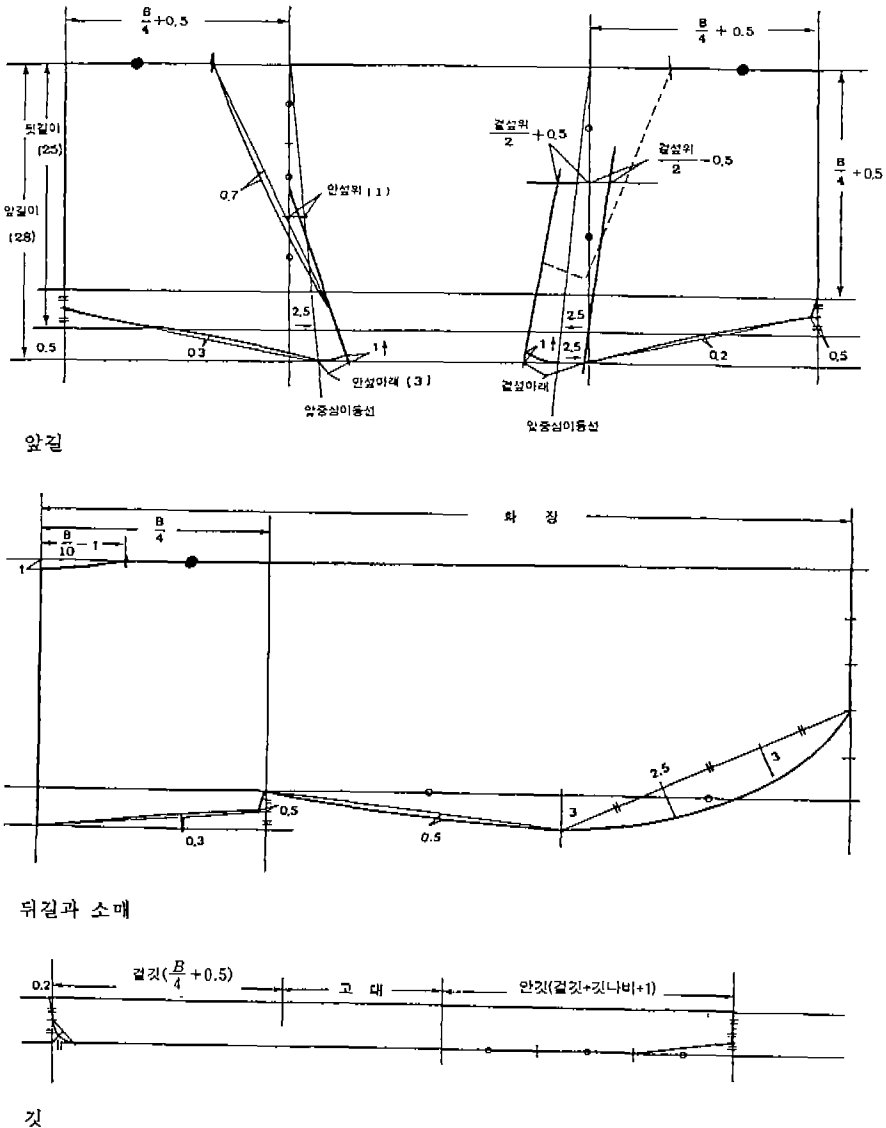
'여자저고리 패턴 B'로 명명하여 체형에 따른 새로운 여자저고리 패턴을 개발하였다.

II-2. 조끼허리

(1) 기존 조끼허리 패턴의 분석
 치마의 어깨허리는 착용감을 고려해 조끼허리 형

태로 개발하였으며 젊은 여성들이 가슴에 압박감을 느껴 한복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으므로 걸치마와 속치마의 허리가 브래지어를 한 상태에서 가슴을 누르지 않게 함으로써 착용감을 높이는 데 유의하였다.

조끼허리 패턴은 기존 패턴 조사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것으로 판단되는 패턴을 1단계로 제



(그림 1) 여자 저고리 패턴 III

작하여 저고리 착의실험 때와 동일한 A, B 2명의 모델에게 착용시켰다. 그 결과 다아트가 미관상 좋지 않고, 고대가 넓어 등과 가슴의 곡선파임이 덜 아름답지만 제도의 편의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이를 기본으로 하되, 목둘레의 곡선파임은 U자형이 아름답다는 결론을 얻고 새로운 패턴 개발에 참고하였다.

(2) 패턴개발 및 예비 착의실험

조끼허리의 길이는 저고리 도련선 밖으로 허리가 빠져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저고리길이 -2cm로 하였다. 조끼허리의 목둘레선 파임을 U자형으로 하기 위해 어깨선을 기존의 패턴보다 중심 방향으로 1cm 이동하였으며, 목둘레선의 파임도 진동선까지 파주었다.

속치마조끼허리는 걸치마의 조끼허리선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속치마의 조끼허리 목둘레와 진동둘레의 곡선은 걸치마의 조끼허리선보다 전체적으로 0.5cm 작게 하였다. 속치마조끼허리의 길이는 등길이와의 상관관계를 찾아 등길이 $\times 4/5$ 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았다(그림 2). 이를 조끼허리 패턴 I으로 정하였으며 면아사를 소재로 홀으로 제작하여 2명의 모델에게 예비 착의실험하였다.

예비 착의실험 결과, 치마와 속치마조끼허리의 곡선 모양은 양호하나, 치마조끼허리는 활동시 저고리 도련선 밖으로 보일 염려가 있었다.

11-3. 치마

신세대의 체형과 유행을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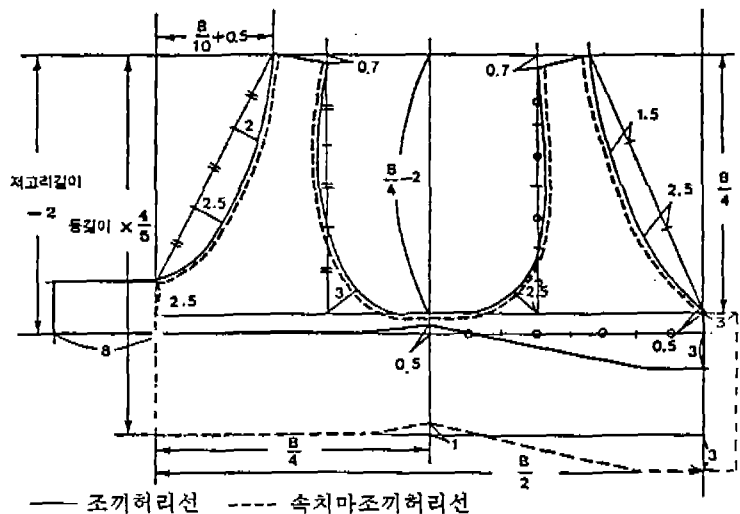
하여 치마를 사선으로 재단하였으며 실루엣이 약간 사선으로 퍼지도록 하기 위해 치마길이를 뒷목높이 - (저고리길이 - 2cm) + 7~8cm(치마퍼짐을 고려한 분량) + 4~5cm(구두높이)로 정하였다. 치마위둘레는 조끼허리둘레의 2배로 정하여 사선재단시 깎여 나가는 분량에 대해서는, 사선깎음분 = (옷감의 나비 \times 치마폭수) - (조끼허리둘레 $\times 2$) \div (치마폭수 - 1) $\times 2$ 의 산정식을 만들어 치마패턴 I을 개발하였다.⁴⁾ 치마패턴 I을 면아사를 소재로 홀으로 제작하여 2명의 모델에게 예비 착의실험하였다.

예비 착의실험 결과 치마의 길이가 5cm정도 길었고 치마의 주름분도 조금 부족해 보였다.

III. 기성복화를 위한 패턴개발

III-1. 패턴개발과정

예비 착의실험과정에서 지적된 패턴상의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패턴으로 저고리, 조끼허리, 치마를 제작한 후 여러 단계의 착의실험을 거쳐 새로운



(그림 2) 조끼허리 패턴 I

4) 이때의 치마길이는 키 160cm의 20대 여성 모델이, 치마 아래쪽 너비가 300cm정도인 치마를 입었을 때의 치마 퍼짐 분량과 한복 착용 시에 무리없이 신을 수 있는 굵직한 고무신의 굽높이를 배려하여 산정한 것이다.

패턴을 확정하고 4단계의 시제품 패턴치수표를 제시하였다.(표 1, 표 3참조)

<표 1> 여자저고리 치수표

항 목		제품치수	79-155	82-160	85-165	88-165
가슴둘레			79	82	85	88
키			155	160	165	165
등길이			38	39	40	41
화장			72	74	76	78
앞품	A형 (B/4+0.75+2)		22.5	23.25	24	24.75
	B형 (B/4+0.5+3)		23.25	24	24.75	25.5
뒤품	A형 (B/4+0.75)		20.5	21.25	22	22.75
	B형 (B/4)		19.75	20.5	21.25	22
앞중심선 이동	A형(앞품선에서)		2	2	2	2
	B형(앞품선에서)		3	3	3	3
저고리길이 ◎*			24	24.5	25	25.5
저고리 앞길이	A형 ◎+4		28	28.5	29	29.5
	B형 ◎+3		27	27.5	28	28.5
고대			7.4 (B/10 - 0.5)	7.5 (B/10 - 0.7)	7.5 (B/10 - 1)	7.6 (B/10 - 1.2)
진동(B/4+1)			20.75	21.5	22.25	23
겉깃길이(B/4+0.5)*			20.25	21	21.75	22.5
안깃길이(겉깃길이+깃나비+1)			25	26.1	26.95	27.8
깃나비*			4.0	4.1	4.2	4.3
겉섶 나비*	위(깃나비+1)		5.0	5.1	5.2	5.3
	아래(깃나비+1.2)		5.2	5.3	5.4	5.5
안섶나비			2.6	2.7	2.8	2.9
수구(진동×3/5)			11.8	12.3	12.8	13.2
끝둥(깃나비+1)*			5.0	5.1	5.2	5.3
긴고름길이(치마길이+15)*			131	135.5	140	140
짧은고름길이(긴고름-10)*			121	125.5	130	130
고름나비(깃나비×3/2)*			6	6.15	6.3	6.45
동정나비*			1.2	1.2	1.3	1.5

*표는 유행에 따라 길이와 넓이가 달라지며, 저고리의 길이와 체형, 개인의 취향과도 관련이 깊은 항목이다.

(1) 1차 착의실험

대다수 불특정 소비자들의 커버울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제안된 여자 기성복의 사이즈별 시제품 기본 치수는 인체측측 결과분석 및 논의에 준하여 79, 82, 85, 88로 구분하였다.⁵⁾ 특히 여자저고리의 경우는 피트(fit)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피험자를 가슴부위의 형태에 따라 A형과 B형의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데에 평편율을 사용하였다. 즉 평편율이 0.74미만인 체형(유방이 납작하거나 가슴너비가 넓은 체형)은 A형으로 구분하고, 0.74이상인 체형(유방이 발달하였거나 가슴너비가 적은 체형)은 B형으로 구분하여 착의실험을 실시하였다.⁶⁾

착의상태를 관찰하기 위하여 각 시제품의 기준치수별로 20~29세의 여자 피험자를 각각 9~10명씩 모두 579명을 계측하여 이 중에서 564명의 피험자를 선정하였다. 피험자들은 소비자로부터 임의로 추출하였으며, 가슴둘레를 기준으로 적당한 시제품 치수를 선택하여 착용하였다.

여자는 누드 사이즈를 기준하여 시제품 기준치수보다 가슴둘레가 5cm 작고 브라지어와 속치마, 걸치마를 모두 착용한 후의 가슴둘레는 제품에 표시된 기준치수보다 $\pm 1.5\text{cm}$ 범위에 해당되는 소비자를 피험자로 선정하여 착의상태를 관찰하였다. 예를 들면, 누드사이즈의 가슴둘레가 78.5~81.5cm 범위이고, 속치마와 걸치마를 모두 착용한 후의 가슴둘레는 83.5~86.5cm 정도가 되는 소비자는 시제품 기준치수가 85의 치마저고리를 착용하도록 하였다.

시제품을 피험자에게 착용시킨 후 치마의 착의상태 평가는 전체적 외관, 착용감, 치마 조끼허리모양, 속치마 조끼허리모양, 치마길이, 치마의 앞모양, 치마의 뒷모양 등 7개의 항목을 매우 나쁘다, 약간 나쁘다, 보통이다, 약간좋다, 매우좋다의 평가항목에 따라 착의 상태를 관찰하였다. 또한 저고리의 착의상태 평가는 전체적인 외관, 착용감, 앞품, 진동길

이, 걸선행, 안선행, 안선티비, 걸선티비, 고대나비, 깃나비, 걸깃길이, 안깃길이, 걸깃, 걸선티의 균형, 앞도련선, 앞길이, 고름길이와 나비, 화장, 수구, 배래선, 옆선길이, 뒤품, 고대깃의 파입정도, 뒷길이, 뒷도련선 등 25개의 항목을 매우 나쁘다, 약간 나쁘다, 보통이다, 약간좋다, 매우좋다의 5점 척도로 평가항목에 따라 착의 상태를 관찰하였다. 평가표의 관찰기록은 연구원 5명과 보조연구원 2명이 작성하였다.

(2) 1차 착의실험 평가 결과

① 여자저고리

1차 착의실험 평가결과 저고리는 A, B형 모두 앞뒤품의 여유가 적었다. '여자저고리 패턴 A'로 제작된 저고리는 전체적으로 앞품의 여유분이 부족하였으며, 앞길이가 1cm정도 짧게 느껴졌다. 이와같은 원인은 앞중심선이 이동된 사선의 경사 각도가 적으므로 앞처짐으로 내려진 길이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생각되어 앞처짐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였다. '여자저고리 패턴 B'로 제작된 저고리는 도련부분에는 적당히 여유가 있으나 윗가슴 부위의 여유분이 부족하였고 A형과는 달리 앞길이는 적당하였다. 또한 B형은 착용시 걸선행이 A형보다 지나치게 사선으로 기울은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그러나 고대점, 깃나비와 길이, 뒷품과 뒷길이, 소매의 형태와 길이, 고름의 나비와 길이는 A, B형 모두 만족할만한 수준이었는데, 진동은 체형에 따라 약간 좁게 느껴지며, 어깨선에 당김 주름이 나타나는 피험자가 많았다. 또한 배래선의 등근정도가 많은 피험자들로부터 불만족스럽게 지적되었다.

② 치마

1차 착의 실험에서는 예비 착용실험시의 치마를 저고리와 함께 한벌로서 착용하여 착장 상태를 평가하였다. 그런데 가슴둘레를 중심으로 적당한 저

5) 강순제 외 4인(1999, 1), p.132.

6) 강순제 외 4인(1999, 1), p.133.

<표 2> 치마 저고리 1차 착의실험 결과

	여자저고리 A형	여자저고리 B형		치마
앞	-앞품의 여유가 적음 (전체적으로 부족함) -앞길이 1cm정도 짧다 -착용 시 걸선표선이 사선으로 기울어졌다 -깃나비와 길이 좋다 -고름나비와 길이 좋다 -고대점 좋다	-앞품의 여유가 적다 (도련부분은 적당하나 유방 부위가 부족함) -앞길이 좋다 -걸선표선이 사선으로 기울어짐(사선 기울기가 B형 보다 심하다) -깃나비와 길이 좋다 -고름나비와 길이 좋다 -고대점 좋다	조끼 허리	-총길이가 1cm정도 길다 -진동과파임이 깊다 -겉치마 조끼허리 곡선 파임 좋다 -속치마 조끼허리 곡선 파임이 겉치마에 비하여 부족하다 -속치마의 조끼허리가 길다.
뒤	-뒤품이 조금 적음 -뒷길이 좋다 -고대깃 좋다	-뒤품 좋다 -뒷길이 좋다 -고대깃 좋다	길이	-3~4cm길다
소매	-진동이 좁다 -화장 좋다 -배래곡선 좋지 않다	-진동이 약간 좁다 -화장 좋다 -배래곡선 좋지 않다	폭	-치마폭 위둘레의 주름분이 부족하다

고리의 시제품과 함께 착용한 치마의 길이는 모든 치수에서 여전히 3~4cm길게 나타났고 치마 위둘레의 주름분도 모자랐다.

또한 치마조끼허리선이 저고리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과 속치마 조끼허리둘레선이 치마조끼허리둘레선 밖으로 빠져나올 것이 지적되었으며, 속치마 조끼허리도 근래 A-Line을 지향하는 한복의 실루엣에는 길고, 속치마조끼허리의 곡선과파임이 치마조끼허리의 바깥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표 2).

(3) 1차 착의실험 후 패턴의 수정

① 여자저고리

치마저고리 1차 착의실험 평가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여자저고리 패턴 A'와 '여자저고리 패턴 B'를 개발하였다.

◎ 여자저고리 패턴 A

뒤품은 B/4+0.5cm에서 B/4+0.75cm로, 앞품은 B/4+0.5cm+2cm에서 B/4 +0.75cm +2cm (2cm는 앞중심의 사선이동으로 추가되는 분량)로 수정하여 저고리품에 여유를 주었고, 앞길이는 저고리 뒷길

이 +4cm로 수정하여 착용시의 앞저침 모양을 보완하였다. 또한 앞중심선은 저고리 길이선상에서 앞중심을 사선으로 내 주었던것을 진동 끝점에서 그어준 수평선과 앞중심선과의 교점에서 사선으로 내주어 주는 것으로 수정하여 저고리의 전체적인 여유분을 가슴둘레 +7cm가 되도록 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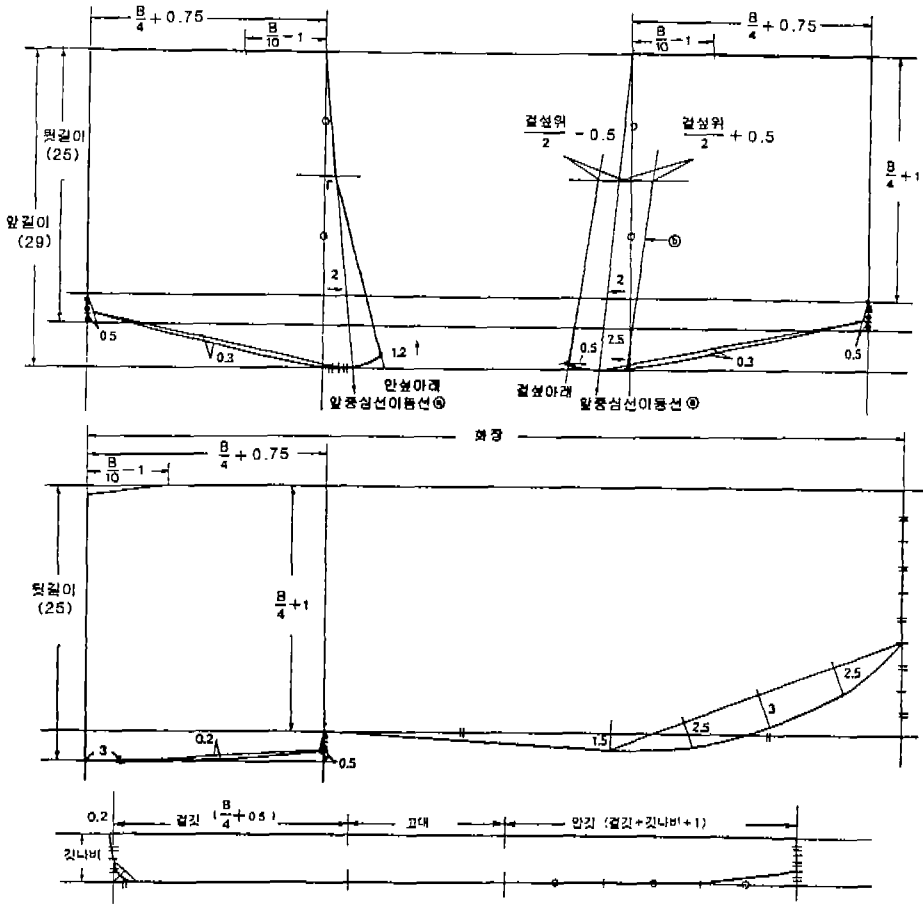
다. 또한 저고리 착용시에 걸선표선이 반듯하게 위치하도록 하기위하여 걸선표 윗부분의 위치설정을 수정하였다. 또한 A,B형 모두 진동의 여유분이 적었으므로 진동길이는 B/4+0.5cm에서 B/4+1cm로 수정하였으며 배래의 곡선은 보다 완만하게 수정하였다.

◎ 여자저고리 패턴 B

뒤품은 B/4, 앞품은 B/4+0.5cm+2.5cm에서 B/4 +0.5cm+3cm(3cm는 앞중심의 사선이동으로 추가되는 분량)로 수정하여 패턴 A와 동일하게 가슴둘레의 여유분은 7cm가 되도록 하였고 앞길이는 저고리 뒷길이+3cm로 수정하였다. 앞중심선을 사선으로 내주는 방법과 걸선표선의 위치 보정은 패턴 A의 경우와 같다. 또한 진동은 B/4+0.5cm에서 B/4+1cm로 수정하고, 배래의 곡선도 패턴 A의 경우와 같이 완만하게 수정하였다.

② 치마

1차 착의실험 평가결과로부터 치마길이는 뒷목높이-(저고리길이-3cm)+3cm(사선퍼짐에 의한 길이 증가분)+구두높이(4cm)로 수정하였고, 치마폭 위둘레는 치마조끼허리 둘레의 2배에서 2.2배로 수



(그림 3) 여자 저고리 패턴 A

정하여 주름의 여유분을 주도록 한 치마패턴 II를 개발하였다.

또한 치마 조끼허리길이는 저고리길이-2cm에서 저고리길이-3cm로 수정하고, 진동은 $\frac{B}{4}-1$ cm에서 $\frac{B}{4}-2$ cm로 수정하였다. 조끼허리의 곡선파임(앞뒤 진동과 목둘레)은 치마조끼허리와 속치마조끼허리의 곡선파임 차이를 0.5cm에서 1cm로 수정하고 속치마 조끼허리의 길이는 등길이×4/5에서 등길이×3/5으로 좀 더 짧게 수정한 조끼허리 패턴 II를 개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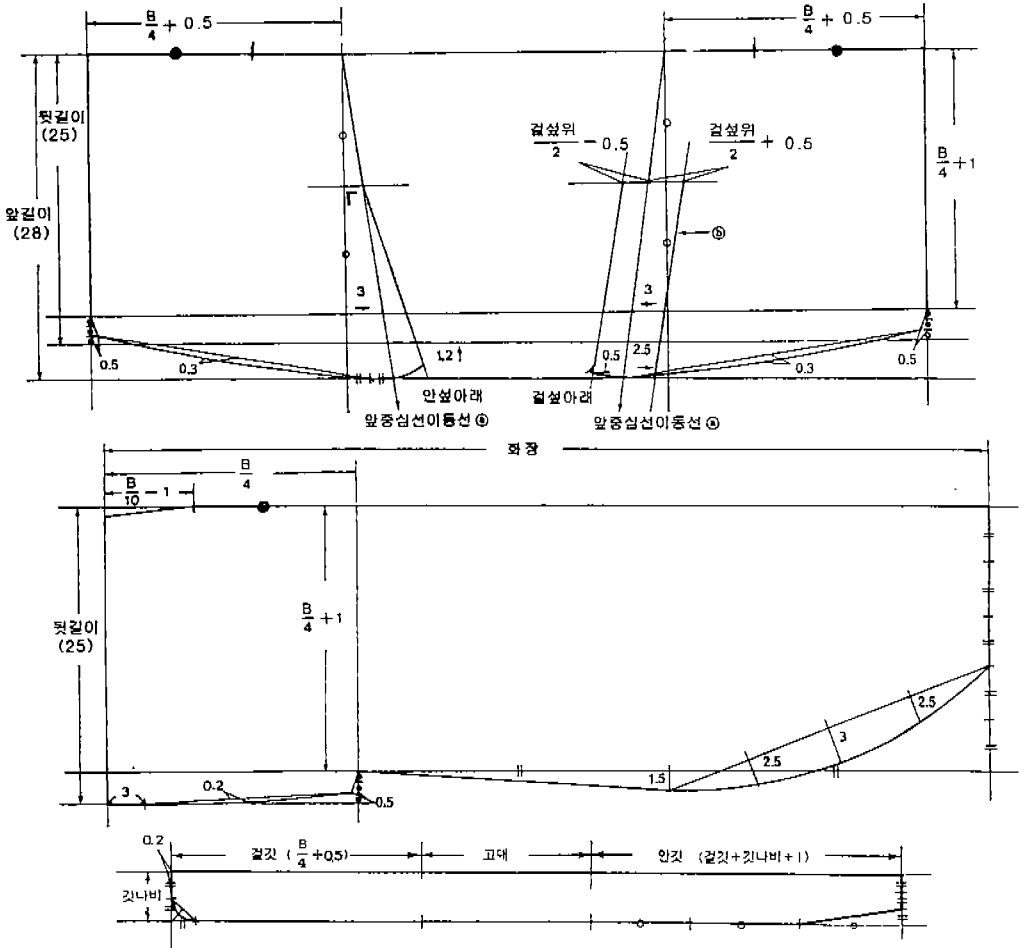
(4) 2차 착의실험 및 패턴의 수정

① 피험자 선정

1차 착의상태 관찰 후 패턴을 수정하여 2차 착의 실험을 하였다. 피험자는 각 시제품의 기준치수별로 8명씩 96명을 선정하였다. 피험자 선정은 1차의 경우와 같이 20-29세의 여자 소비자로부터 임의로 추출하고 임의 추출된 피험자는 가슴둘레를 기준으로 적당한 시제품치수를 선택하여 입도록 하였다. 단 1차 피험자와 중복되지 않도록 고려하였다. 피험자들의 선정기준 신체치수 및 평가표 관찰기록은 1차 착의실험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였다.

② 2차 착의실험 및 수정

여자 기성완복의 사이즈별 시제품에 대한 품, 길이 등의 치수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어서 1차 착의실험에 사용한 '여자저고리 패턴 A'와 '여자



(그림 4) 여자저고리 패턴 B

저고리 패턴 B'를 최종패턴으로 확정하였고, 치마와 조끼허리패턴 II 역시 최종패턴으로 확정되었다.

III-2. 새로운 패턴의 제시

(1) 여자저고리

착의실험 결과, 동일한 가슴둘레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슴의 평편율이 낮은 체형을 위하여 개발된 '여자저고리 패턴 A'와, 평편율이 높은 체형을 위하여 개발된 '여자저고리 패턴 B'로 구분하여 이를 새로이 표준화된 패턴으로 확정, 제시하였다(그림 3), (그림 4).

(2) 치마

개발된 조끼허리 패턴 II를 최종패턴으로 확정, 제시하였고, 치마패턴의 경우는 저고리패턴에 비해 비교적 개발단계가 간단하였지만 착의실험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치마패턴 II를 최종패턴으로 확정하였다(그림 5), (그림 6).

III-3. 표준화된 패턴의 세부 치수표

(1) 여자저고리 패턴 치수표

제품치수에 따른 여자저고리의 사이즈별 패턴 세부치수는 <표 1>과 같다. <표 1>에 의해 여자저고리

패턴을 사이즈별로 그레이딩 작업을 한 결과는 (그림 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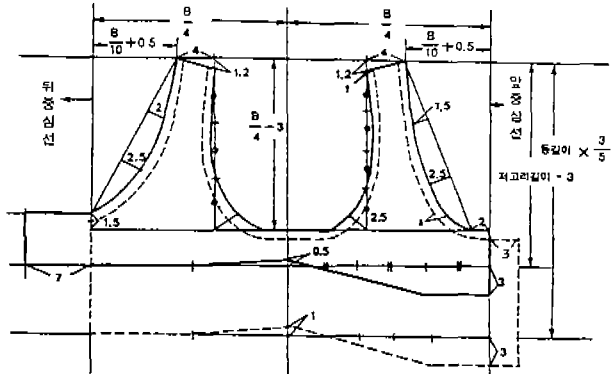
(2) 치마 및 조끼허리의 패턴 치수표

제품치수에 따른 치마 및 조끼허리의 사이즈 별 패턴의 세부치수는 <표 3>과 같다.

<표 3> 치마 및 조끼허리 치수표

항 목		제품치수	79	82	85	88
			-155	-160	-165	-165
치마조끼허리	폭(B/4)		19.75	20.5	21.25	22
	길이 (저고리길이-3)		21	21.5	22	22.5
	고대 (B/10+0.5)		8.4	8.7	9	9.3
	진동 (B/4-3)		16.75	17.5	18.25	19
	어깨나비		4	4	4	4
속치마조끼허리	길이 (2/3×동길이)		25	26	26.7	27.3
*치마길이			116	120.5	125	125
동길이			38	39	40	41
뒷목높이			130	135	140	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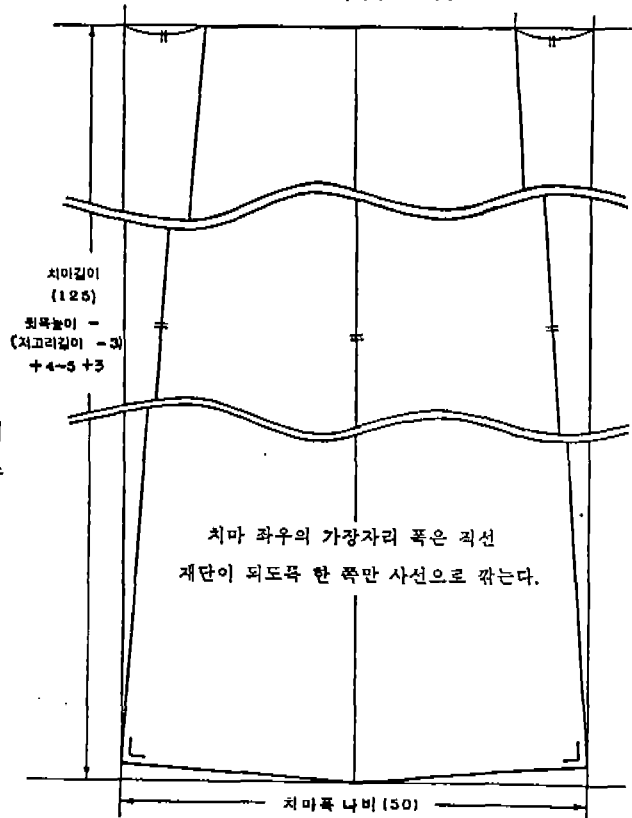
* 치마길이=뒷목높이-(저고리길이-3) + 3(사선퍼짐에 의한 증가분)+ 4~5(구두높이)



— 치마 조끼허리선
 - - - 속치마 조끼허리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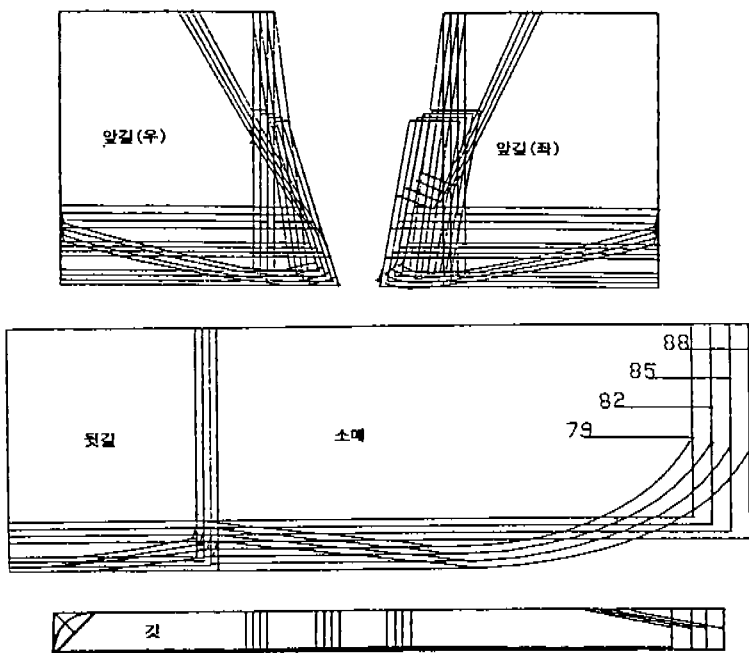
(그림 5) 조끼허리 최종 패턴

$$\text{사선퍼짐분} = \frac{(\text{옷감 나비} \times \text{치마 폭수}) - (\text{조끼 허리 둘레} \times 2.2)}{(\text{치마 폭수} - 1) \times 2}$$



치마 좌우의 가장자리 폭은 직선
 재단이 되도록 한 쪽만 사선으로 깎는다.

(그림 6) 치마 최종 패턴



(그림 7) 여자저고리 패턴 그레이딩



(사진 1) 치마조끼허리의 착장 모습



(사진 2) 치마저고리 착장 측면 모습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20대 여성의 체형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전통 한복의 미적 특성을 살리면서도 신체에 편안하게 잘 맞는 여자 치마저고리패턴을 개발하였다. 새로이 개발한 패턴은 규격별로 세분화하여 구입시의 부적절한 치수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고품질의 중저가 한복을 손쉽게 구할 수 있으며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한복의 기성복산업에 필수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체형에 맞는 패턴을 개발하기 위해 우선 학계 및 업계에서 많이 사용되어 온 기존 패턴에 의해 제작된 저고리의 착의실험을 하였으며, 그 결과 체형에 상관없이 뒤폭이 뜨고 앞폭이 적은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가슴의 평편율이 낮은 A체형(유방이 납작하거나 가슴너비가 넓은 체형)과 평편율이 높은 B체형(유방이 발달하였거나 가슴너비가 적은 체형)의 두 체형을 염두에 두고, A B까지 유형의 패턴을 개발·제시하였다. 이는 기존의 패턴과는 달리 윗가슴둘레의 밀착성이 좋으면서 가슴의 볼륨을 자연스럽게 살려주도록 뒷폭을 줄이고 앞중심선을 사선으로 내어 앞폭을 늘려주는 방식의 제도법을 채택한 것으로서, 인체의 입체적 형상을 평면구성의 한복 제도법에 수용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제작된 저고리의 형상은 평면으로 놓았을 때 저고리앞길 좌우가 사선으로 심하게 겹치고 좌우 앞도련선도 서로 교차되면서 아래로 빠지게 되나 착용시에는 편안하고 아름다운 실루엣을 나타내게 된다.

또한 새로운 저고리와 조화되도록 치마와 속치마도 약간의 변화를 주었으며, 특히 조끼허리도 입체적 구성을 한 저고리에 적합하도록 개발하여 기성 한복의 수요증대와 대중화를 위한 표준치수의 제정과 신체의 특성에 맞게 표준화된 패턴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입체적인 인체를 배려하면서 20대 불특정 다수에게 보다 융통성 있게 수용될 수 있도록 개발된 본 한복패턴이 기존패턴을 사용하는데 익숙한 생산업자들에게도 널리 보급되기 위해서는, 20대 연령층의 체형과 정서를 이해하고, 새로운 패턴에 대한 인식과 홍보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한복기성복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단계 사이즈를 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서양복에서와 같이 한복에서도 체형과 연계한 지속적인 패턴개발 연구가 필요하며, 또 연령별로 체형의 특징이 다르고 신체 각부위의 크기와 그에 따른 신체비율이 달라지는 것에 유의한 연령별 패턴연구와 더불어 변화하는 소비자의 취향과 유행도 주시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문화체육부, 한복의 표준치수 설정과 패턴 표준화를 위한 연구(연구보고서), (1997. 12).
- 2) 문화체육부, 한복의 생산·유통·소비 실태조사 연구(연구보고서), (1996).
- 3)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산업의 표준치 설정을 위한 국민 체위 조사 보고서, (1980).
- 4) 공업진흥청, 의류제품의 호칭 및 치수 규격 단순화. -의류치수 관련 규격 개정 자료, (1990).
- 5) 강순제, 남윤자, 조효숙, 홍나영, 황의숙, 20대 여성한복의 기성복화를 위한 치수규격 연구, 한국복식학회, 복식 42호, (1999. 1).
- 6) 권영숙, 우리나라 여자저고리 원형설계에 관한 실험적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6).
- 7) 김분칠, 한복구성학, 서울:교문사, (1990).
- 8) 남윤자, 여성 상반신의 측면 형태에 따른 체형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1).
- 9) 박현정, 20대 여성한복의 표준치수 설정을 위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2).
- 10) 조정희, 한복, 서울:형설출판사, (1991).
- 11) 박경자, 임 순영, 한국의상구성, 서울:수학사,
- 12) 이주원, 한복구성학, 서울:경춘사, (1991).
- 13) 최유경, 성인여성 체형의 형태적 분류 및 연령 증가에 따른 형태외 크기의 변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7).